

## 4 . 16 생명안전공원의 공간적 의미\*

김성호 (한국성서대학교 부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본문

1. 추모와 애도의 공간
2. 사회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공간
3. 기억의 영토화가 이뤄지는 공간
4. 공원이란 공간의 의미
5. 갈등과 합의 과정의 결과
6. 다크 투어리즘 장소로의 생명안전공원의 의미

### III. 나가는 말: 추모와 애도를 넘어서 안전과 생명으로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1.50.04>

\* 본 연구는 2020년도 한국성서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주저자, skim@bible.ac.kr

---

• ABSTRACT •

---

## Spatial Meaning of ‘4·16 Life-Safety Park’

Prof., Kim, Seongho (Korean Bible University)

This article explores the spatial meaning of the 4·16 Life-Safety Park on how to remember the Sewol ferry and recover the wounds. After examining the process for the creation of the 4·16 Life-Safety Park, the spatial meaning of the 4·16 Life-Safety Parka space is examined with concept of ‘territorialization of memory, and ‘therapeutic landscaping. First, the 4·16 Life-Safety Park as a memory space not only provides a space for mourning and remembrance to the victims’ families, but also a space for mourning and remembrance for social disasters. Second, it is a space for healing and reconciliation, and a space for territorialization of memories. In addition, it is a space created through the process of conflict and consensus, and is located in a park in the city center and has various possibilities including urban regeneration. Finally, this article offers several suggestions for the 4·16 Life-Safety Park to become a symbolic and practical space that goes beyond mourning and commemoration for the pain and sorrow caused by social disasters and creates hope for the future toward a society that values safety and life.

**Key words:** 4·16 Life-Safety Park, Spatial Meaning, Territorialization of Memory, Therapeutic Landscaping

---

## I. 들어가는 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7년이 지나도록 세월호의 아픔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 세월호의 아픔은 생명안전공원이라는 공간으로 치유를 시도하는 과정에 있다. 공간으로서의 4·16 생명안전공원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데 공간의 개념은 정신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 사회적인 것, 역사적인 것을 연결하기 때문이며,<sup>1)</sup> 장소가 지닌 물질적인 특성으로 인해 기억은 경관 속에 각인될 수 있고 그래서 공적 기억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sup>2)</sup>

지난 수십여 년간 대한민국 사회에서 발생한 대다수의 사회적 참사에 대한 기억은 공간과 분리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기억은 사회적 참사만 한 가지 하나의 사고이자 종결된 기록으로만 남아있을 뿐, 기억의 공간이 현재적 의미로 재현되지는 않고 있다. 1993년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1999년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 2014년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사회적 대형 참사는 신문기사나 방송뉴스에서 다루고 기록된 역사적 사실로만 남아있을 뿐 고통에 대한 기억을 공감하거나 사회적 의미로 재현함으로써 치유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sup>3)</sup>

추모의 장소에 있어서 피해자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근접한 추모공간 건립은 시민이 주도하는 활력적 추모사업을 지속할 수 있기 위한 필요조

1) Henri Lefebvre, *(La)production de l'espace*, 양영란 역, 『공간의 생산』 (서울: 에코리브르, 2011).

2) Edward Casey, *Remembering: A Phenomenological Stud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7).

3) 심영섭, "집단적 기억과 기억 공간: 에쉴레와 엔쉴레 그리고 세월호,"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6(2018), 177-199.

건이며 훼손된 지역 공동체가 소통과 통합을 통해 치유되는 방안이기도 하다.<sup>4)</sup>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안산시 도심에 위치한 화랑유원지에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을 계기로 세월호의 상처에 대한 치유를 기대하고 있다. 도심지역에 들어설 4·16 생명안전공원은 더 이상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장레나 봉안 공간이 아닌 일상과 참사에 대한 사회적 기억이 공존하는 공간, 4·16 관련 콘텐츠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전시 공간, 세월호 희생자들의 봉안 공간, 생명과 안전을 논의하는 교육 공간, 그리고 시민 참여형 문화의 공간이 된다.<sup>5)</sup> 4·16 생명안전공원은 침예하게 이어진 갈등의 과정을 거쳐, 2018년 정부가 화랑유원지에 ‘4·16 생명안전공원’을 건립하려는 계획을 확정된 이후 현재 디자인 공모와 설계 등을 거쳐 본격적 공사를 앞두고 있다.<sup>6)</sup>

세월호를 어떻게 기억하고 상처를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 본 연구는 도심의 공원에 조성될 4·16 생명안전공원이 갖는 다양한 공간적 의미를 통해 탐색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참사로 인한 아픔과 슬픔에 대한 애도와 추모를 넘어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로 가는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공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 김명희, “재난의 감정정치와 추모의 사회학: 감정의 의료화를 넘어 사회적 치유로,” 『감성연구』 19(2019), 145-178.

5) “4.16생명안전공원 국제설계공모전 스타트”, 뉴스 '환경과 조경', 2021년 1월 18일자 기사. <https://www.lak.co.kr/news/boardview.php?id=10630> (2021년 6월 5일 접속).

6)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의 법적 근거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장 추모사업, 제 36조 - 국가 등은 희생자 추모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제38조(추모공원 등의 명칭) 지원·추모위원회는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 등의 명칭에 대하여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결정하여야 한다”에 있다. 2018년 2월 28일 확정된 ‘4.16 생명안전공원(당시는 가칭)’ 계획은 안산시 화랑유원지 인근 23,000㎡ 넓이의 부지에 안산시에 위치한 화랑유원지에 추모공원과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으로 추모시설을 구성해 조성하는 것이었다.

## II. 본문

### 1. 추모와 애도의 공간

추모공간의 일차적인 기능은 애도와 이별이라고 할 수 있는데<sup>7)</sup> 추모와 애도는 문화와 관습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중기 구석기 시대 이후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 장례 문화는 단지 죽은 자를 기리기 위한 의례일 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달래기 위한 관습이었다.<sup>8)</sup> 서구의 경우 추모공간은 도시나 마을의 입구나 중심에 묘지가 놓여 있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즉, 추모의 공간이 일상생활과 가까운 곳에 있거나 공존하는 것이다. 서구의 문화처럼 마을의 입구나 시민공원과 같은 방식으로 묘지가 조성되어 일상의 삶 속에서 친숙한 삶의 공간과 자연스럽게 어울려있다면, 이는 죽음이 삶의 영역과 별개의 것이 아님을 전제하는 것이고, 이 경우 별도의 추모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적어진다. 이는 관습의 문제이기도 하고 문화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삶과 죽음, 혹은 일상과 추모를 엄격하게 구분하고자 하는 유교적인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죽은 자에 대한 기억을 의례화하고 추모의 시간과 공간을 양식과 하여 일상의 삶과 격리하고자 하는 문화를 갖고 있다. 따라서 마을 중심에 묘지가 조성된 서구의 문화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sup>9)</sup> 한국 사회에서 삶과 죽음의 공간이 분리된 문화현상은 죽음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문화전통에 더하여 일제 강점기를 비롯하여 해방 이후 국가주도 산업화시기에 도시개발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명분으로 장묘시

7) 서지석·고진호, “추모공간 환경설계와 죽음 교육프로젝트 실행 탐색,” 『종교교육학연구』 63(2020), 1-18.

8) 전성원, “애도의 정치학 혹은 정치의 부재에 대하여,” 『플랫폼』 48(2014), 8-14.

9) 윤지관, “추모, 기억, 그리고 역사—추모공간으로서의 강북,” 『인문과학연구』 18(2013): 69-82.

설을 혐오시설로 취급한 결과에 기인한다. 그 결과, 현재 한국사회의 죽음의 경관은 도시에 있는 삶의 공간과 분리되어 도시 주변부나 외곽에 배열되고 있다.<sup>10)</sup>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한국 사회에서 추모공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화장장이나 공동묘지라고 불렀던 공간이 단지 시신을 화장하거나 매장하는 장소가 아닌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망자를 기리며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더 추가된 ‘추모공간’이라는 용어로 변화되어 왔다. 망자를 매개로 하여 살아있는 자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추모공간을 통해 산 자와 죽은 자의 공간이 조금씩 연장되며 흘러간 과거의 시간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현재를 창조한다.<sup>11)</sup>

기억 공간으로서의 생명안전공원은 희생자 가족에게 애도와 추모의 공간을 제공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단원고 학생의 유가족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진 희생자들을 한 곳, 특히 희생자들이 살던 지역으로, 모을 수 있기를 희망해왔다.

“8군데에 흩어진 우리 아이들을 안산에 품어주세요.”<sup>12)</sup>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거의 같이 간 아이들이 많아요. 한 공간에 모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만 그 아이들도 조금은 쓸쓸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김순길/단원고 희생자 어머니)<sup>13)</sup>

10) 송현동, “한국 사회의 죽음에 대한 태도,” 『비교문화연구』11(2005), 207-243.

11) 강동연 외 3인, “추모공간의 시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 논문지』9(2019), 677-685.

12) ‘세월호 유족 희생학생 품고 안전사회로 가야 『이데일리』2021년 4월 10일자 기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41446629014808&mediaCodeNo=257> (2021년 6월 5일 접속).

13) ‘어렸을 때 뛰놀았던 유원지...이젠 거기서 영원히’ 『MBC 뉴스』 2019년 4월 16일자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해요.” (정세경/엄마의노란손수건 활동가)<sup>14)</sup>

“안산에서 태어나고 안산에서 자라고 안산에 있는 단원고등학교를 다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게 된 거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안산에 생명안전공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sup>15)</sup> (김광매/단원고 희생 학생 가족)

4·16 생명안전공원의 조성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희생자들이 한곳에 모이는 것을 바라는 유가족의 염원을 반영한 것이다. 공원이 들어설 화랑유원지는 희생 학생들이 다녔던 단원고와 가까워 누구보다 유가족들이 찬성하는 곳이고, 안산시 주민경청회에서 제안된 공원 후보 장소 5곳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곳이다.

또한 4·16 생명안전공원은 단지 희생자 가족뿐만 아니라, 국가의 부채가 초래한 참사에 대한 사회적 애도와 추모의 공간으로 공공의 기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애도는 필수적이며 중요한 과제이지만 지금까지 국가와 정부는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양산한 희생자들에 대한 진솔한 애도와 예우는커녕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국가와 사회가 초래한 참사에 대한 사회적 애도와 추모의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sup>16)</sup>

---

기사.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251886\\_28802.html](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251886_28802.html) (2021년 6월 5일 접속).

14) 위의 기사.

15)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부지 찬반 논란 『YTN』2019년 4월 15일 [https://www.ytn.co.kr/\\_ln/0115\\_201904150410359879](https://www.ytn.co.kr/_ln/0115_201904150410359879) (2021년 6월 5일 접속).

16) 전성원, “애도의 정치학 혹은 정치의 부채에 대하여,” 8-14.

## 2. 사회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공간

오늘날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치유에 관한 지리적 접근은 일상적 삶(everyday life)에서의 치유를 바탕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집, 커뮤니티, 그리고 치유의 주체들이 살고 있는 도시 등이 그 지리적인 범위에 해당된다.<sup>17)</sup>

세월호 참사의 의미에 대한 한국 사회는 ‘사고-보상-의료적 치료’의 프레임과 ‘사건-진실-사회적 치유’의 프레임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으로 진행되어 왔다.<sup>18)</sup>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부여하는 데에는 다양한 견해가 충돌해왔지만, 비교적 공감대를 형성해 온 한 가지 접근방식은 세월호 참사는 이전의 다른 참사들과는 달리 사회적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트라우마의 회복은 세 단계를 거쳐 완결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 생존자는 안전을 확립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억하고 애도하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일상과 다시 연결되어 가는 것이다.<sup>19)</sup> 따라서 사회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애도의 시간이 필요하고<sup>20)</sup> 사회적 참사의 치유의 과정에서는 그 공동체 다수의 구성원들이 참사를 트라우마로 인식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사건을 기억하고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피해자들이 사회적 관계를 복원하는 일련의 단계들을 포괄한다.<sup>21)</sup>

17) 박수경, “일상적 삶에서의 치유의 공간에 관한 지리학적 고찰,” 『대한지리학회지』 49(2014), 546-562.

18) 김명희, “재난의 감정정치와 추모의 사회학 : 감정의 의료화를 넘어 사회적 치유로,” 145-178.

19) Judith Herman, *Trauma and Recovery: The Aftermath of Violence--from Domestic Abuse to Political Terror*, 최현정 역, 『트라우마-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과주: 열린책들, 2012).

20) 김명희, “세월호 이후의 치유,” 『문화와 사회』19(2015), 11-53.

21) 김왕배, “트라우마의 치유과정에 대한 사회학적 탐색과 전망,” 『보건과 사회과학』 37(2014), 5-24.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연학 신부가 세월호 관련해서 한 학술행사에서 발언한 내용은 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는 “충분히 애도 되지 못한 사별은 애도를 금하는 자들에게도, 나아가 사회 전체에도 더 큰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슬픔과 분노를 잘 치유하고 가지 않으면 비극은 되풀이될 것이고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며, 온 국민에게 남은 트라우마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한다.<sup>22)</sup>

사회적 트라우마의 치유와 관련하여 미국의 의료지리학자 Gesler가 제시한 ‘치유의 경관(therapeutic landscapes)’이라는 개념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Gesler는 코소보 사태, 뉴욕 9·11 테러 등과 같은 대형 참사로 인한 사회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의 핵심으로 ‘공동체의 단단한 네트워크’를 꼽는다. 즉 치유의 핵심은 친밀감, 관심의 네트워크, 상호간의 강한 유대감 형성에 있다는 것이다.<sup>23)</sup>

오혜영은 사회적 재난을 겪은 공동체의 집단적 트라우마 극복과정에서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역 주민 간 상호교류’, ‘지역 문제에 대한 참여 활동’, ‘유연하고 다양한 공동체 협의체’,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의 규범과 역량’, ‘취약계층과 다문화에 대한 수용과 연계’,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 ‘지원을 위한 지식과 시스템 공유’, ‘위기에 따른 유연성’ 등을 강조했다.<sup>24)</sup>

이처럼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 참사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 전체가 함께 하는 치유의 과정이 필요하다. 공

22) ‘세월호, 트라우마는 극복되지 않는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2015년 4월 27일자,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01> (2021년 6월 5일 접속).

23) Gesler, W. M., “Therapeutic landscapes: Medical issues in light of the new cultural geography,” *Social Science & Medicine*, 34((1992), 735-746.

24) 오혜영, “재난에서의 집단 트라우마와 지역공동체 탄력성,” 『한국심리학회지』28 (2016), 943-969.

동체의 회복은 세월호 피해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안산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더할 수 있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안산이라는 도시를 치유의 공간으로 만드는 다양한 자발적인 노력들이 생겨났다. 안산 화랑유원지에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이미 안산을 치유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들이 이어져 온 것이다. 주요 사례를 소개하면, 2014년 단원고 학생 97명이 살았던 와동에 “치유공간 이웃”<sup>25)</sup>이 조성되고, 2015년 세월호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토론회와 시민회의가 열리고, 안산 시민들이 ‘안전도시 조례안’이 발의(2017)되기도 하였다. 현재 세월호 참사 관련 치유의 공간은 약 7개 내외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민간에서 주도하는 형태가 중심이다. 이를 위해 치유의 공간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회복, 다양한 이벤트 기획 등을 시도하고 있으며, 안산시 외의 다른 단체와도 유기적으로 연결해 세월호 참사의 기억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26)</sup>

### 3. 기억의 영토화가 이뤄지는 공간

4·16 생명안전공원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기억의 영토화’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기억의 영토화는 공간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공간 안을 물리적으로 구성하며 담론을 생산해 특정 기억의 공간적 경계를 만들고 재구성하는 활동을 의미하는데 신혜란은 기억의 영토화 과정을 통해 세월호 참사가 잊히지 않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기억의 영토화는 기억의 탈정치화로 이어지고 기억의 탈영토화는 기억의

25)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주제로 2019년 개봉한 이종연 감독의 영화 ‘생일’의 모티프가 된 장소이기도 한 “치유공간 이웃”은 2021년 1월 문을 닫았다.

26) 박수경, “세월호 참사 이후 지역 커뮤니티에 형성된 치유의 공간에 대한 지리적 고찰,” 『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대회발표집』(2017), 3-8.

재영토화로 이어지는 단계를 거친다. 기억의 영토화과정에서 분명히 갈등이 발생하고 기억이 소멸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단원고의 기억교실은 기억의 물질적 변환을 중심으로 기억의 영토화가 이루어진 사례로, 기억공간의 전형적인 모습과 갈등을 보여준 곳이고, 담론경쟁에서 밀려 나중에 탈영토화된 곳이다. 기억의 재영토화는 탈영토화 시도를 막아내면서 세월호 참사의 기억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sup>27)</sup> 기억공간은 과거의 상징성을 현재와 미래에 공간적·물질적으로 재현한 장소. 기억의 영토화 과정의 결과물이라고 하는데 4·16 생명안전공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이 영토화의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공간이다.<sup>28)</sup>

세월호에 대한 기억공간은 팽목항, 안산 정부 합동분향소, 단원고 기억교실, 광화문 광장, 제주 re:born 등의 공간을 통해 안산 화랑유원지로 영토화 과정을 거쳐 왔고 이제 4·16 생명안전공원에 정착하려 한다. 이 같은 세월호에 대한 기억이 영토화되는 과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세월호 참사의 추모공간이 단지 희생자 가족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공간으로 다양하게 변화해가는 과정을 거쳐 오며 공공의 기억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이나 사회적 차원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자발적인 추모공간의 조성행위는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여러 문화권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문화 현상이다. 추모대상의 범위는 개인적 차원에서부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는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노변)에 희생자를 기리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많은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자

27) '세월호 참사의 기억과 기억의 영토화', 『참여와 혁신』2019년 4월 2일,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72> (2021년 6월 5일 접속).

28) 신혜란, "기억의 영토화 세월호 기억공간 형성과정을 사례로," 『공간과 사회』57(2016), 115-154.

발적인 추모공간 중 하나이다. 이 경우 대부분 가족이나 소규모 공동체에 의하여 추모공간의 구성이 주도된다.<sup>29)</sup> 자발적 추모공간의 특징 중 하나는 추모의 장소는 반드시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동일하거나 관련이 있는 곳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뉴욕 9·11 메모리얼처럼 참사가 발생한 바로 그 장소나 근접한 지역에 추모공간이 조성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나타나기도 한다.<sup>30)</sup> 이 같은 현상은 한국 사회에서도 볼 수 있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 자발적 추모공간이 많이 생겨났다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년 후에 발생한 강남역 화재실 살해사건 피해여성의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공간이 강남역 10번 출구에 조성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구의역 스크린 도어 김군 사망사건을 추모하는 공간이 생겨나서 오늘에 이르고 있고, 2021년에는 정인이의 추모공간이 법원과 양평 묘지에 마련되는 등 시민의 자발적인 추모공간이 탄생하여 공공의 기억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세월호 참사의 추모공간인 4·16 생명안전공원은 단지 희생자가족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인 추모공간을 마련하려는 노력에 국가의 지원이 더해졌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4. 공원이라는 공간의 의미

현대 도시 중심 사회의 추모공간은 도심의 일상 시설이 되어 지역민들

29) 이승엽·변나향, “시민 자발적 추모공간의 형성과 공간적 특징 - 강남역 10번 출구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21(2019), 71-78. 때로는 한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테러나 대규모 사건에 대하여 그 사회에 속한 대부분의 구성원들에 의하여 다수의 장소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추모의 공간이 형성되기도 한다. 1995년 오클라호마시티 폭탄테러, 2001년 발생한 911테러 그리고 2017년 라스베이거스에서 발생한 콘서트장의 총기 테러 등이 이 경우에 속한다.

30) Franck K.A. & Paxson, L., “Transforming public space into sites of mourning and free expression,” In Franck K. A. & Stevens, Q., (Eds) *Loose Space: Possibility and Diversity in Public Life*. (London: Routledge, 2007).

의 참여와 상호작용을 끌어낼 때 그 가치가 확산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 사회는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망각이나 외면의 방식으로 대해왔다. 대표적인 참사인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대구지하철 참사의 추모시설은 도심에서 떨어져 있거나 찾아가기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안산 화랑유원지는 시내 중심부에 있는 공원으로 지리적, 물리적, 시간적, 정서적 접근성이 높은 장소라는 차별성을 지닌다. 공원에는 숲, 정원, 복합문화시설이 어우러지고 희생 학생들이 놀던 장소에 청소년의 공연장과 시민의 쉼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추모시설로서의 4·16 생명안전공원은 495억 원을 투입해 문화편의시설 등이 복합된 새로운 개념의 문화공원, 희생자 가족과 함께 시민이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찾아 문화와 건강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시민 친화적 공원, 디자인설계 국제공모로 세월호 참사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최대한 살린 세계적 명소화 및 지역 랜드마크, 희생자 봉안시설은 일반인 이용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예술적 요소를 가미한 지하화 등 비노출 형태로 건립될 계획이다. 실제 안산 도심의 유일한 공원 안에 납골당이 생긴다는 이유로 극심한 반대여론이 있었는데 안산 화랑유원지 전체의 3.8% 공간 활용 봉안시설은 전체 부지 0.1%이며 지하에 위치할 계획이다. 이처럼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도심 한복판 공원에 추모시설을 만드는 것은 국내에서 4·16 생명안전공원이 처음으로 그 자체가 공동체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다.<sup>31)</sup> 희생자와 가족들이 살던 지역 도심에 위치한 화랑유원지라는 공원은 유가족들과 4·16 재단의 바람을 담은 곳이기도 하다.

“세월호 가족들은 이 공간을 아주 밝은 공간, 남녀노소 모두가 와서 함께 즐겁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늘에 있는 아이들

31) 김도훈, “도심형 메모리얼파크의 사회적 담론 및 인식분석을 통한 4·16 세월호 참사 추모공원 방향성 제안 연구,” 『한국조경학회지』48(2020), 25-38.

이 바랄 것이고, 아이들도 자신들이 어둡고 무거운 공간에 있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 한석호 (4·16재단)<sup>32)</sup>

“산책을 나오거나 즐겁게 데이트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언제든지 우리 사회를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우리 아이들을 아프게만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미현 (세월호 희생자 성민 엄마)<sup>33)</sup>

또한 화랑유원지는 안산시 주민경청회에서 제안된 공원 후보 장소 5곳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곳이다.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 즐겨 찾는 공원이라는 장소에 설립될 4·16 생명안전공원은 전통적인 치유 경관 (Therapeutic Landscaping)의 관점에서 ‘건강관리의 경관(traditional healthcare landscapes)’에 해당된다.<sup>34)</sup> Gesler는 ‘치유의 환경(therapeutic environment)’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한 지리학자로 치유의 경관이란 치유의 효험이 있다고 알려진 배경, 상황, 현장 등을 지칭한다고 정의했다. 도심에 위치한 공원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 즉 일상성이 높은 공간인데, 이 일상성은 단지 물리적 접근성을 넘어서 시민공원은 심리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sup>35)</sup>

32) ‘416 재단은 나와 우리의 재단, 『가톨릭뉴스』2018년 4월 18일.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dxno=19872> (2021년 6월 5일 접속).

33) ‘세월호 유가족은 ‘세금도둑’ 가짜뉴스를 어떻게 이겨냈나, 『미디어오늘』 2018년 3월 20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dxno=141828> (2021년 6월 5일 접속).

34) Gesler, W. M., “Therapeutic landscapes: Medical issues in light of the new cultural geography,” *Social Science & Medicine* 34(1992), 735-746.

35) 박수경, “일상적 삶에서의 치유의 공간에 관한 지리학적 고찰,” 546-562.

## 5. 갈등과 합의 과정의 결과

4·16 생명안전공원은 근린공원 성격의 화랑유원지에 봉안시설을 포함하여 조성하게 되는데, 일부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어 극렬한 반대가 있어 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유가족들은 경건하고 엄숙한 묘역의 형태가 아니라, 꿈과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일부 주민들과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유가족, 시민사회, 행정기관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기념공원으로의 인식전환을 위하여 수년간 새로운 접근 방식과 차별화된 공간조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추모공원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잘 디자인하고 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에게 환영받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논의의 과정 속에서 지역주민과 유가족 의견을 함께 나누며, 주민참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sup>36)</sup> 4·16 안전공원건립을 위해 정부와 안산시,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논의를 시작한 이래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과 부지선정은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첨예한 갈등을 조정해온 결과이다.

2015년 1월 ‘4·16 안전공원’ 건립을 위해 정부와 안산시, 세월호 가족들이 논의를 시작한 것이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에는 안산시가 유가족들과 4·16 세월호참사 안산시 추모사업협의회를 구성한 이후 수차례의 공청회와 시민 토론회를 거치고 그 과정에서 토론회가 과행적으로 끝나고 추모사업협의회가 해산되는 등 갈등을 겪은 끝에<sup>37)</sup> 2018년 2월

36) 김도훈, “도심형 메모리얼파크의 사회적 담론 및 인식분석을 통한 4·16 세월호 참사 추모공원 방향성 제안 연구,” 25-38.

37) 주요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16년 2월 7일, 안산지역 84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러진 4·16희망과 길찾기 안산시민 1000인 원탁토론 (제안된 5개 장소 중 화랑 유원지가 가장 높은 점수 받음), 10월 제종길 안산시장이 화랑유원지를 공원장소로 제안, 11월 피해지역 및 추모공원 후보 주변지역 1차 주민의견 경청회 개최, 12월 10일 ‘안산시추모사업협의회 416안전공원 제1차 시민토론회’ 개최, 2017년 2월 10일 피해지역 및

화랑유원지를 생명안전공원부지로 선정 발표하였다. 이후 구성된 4·16 생명안전공원 추진위원회는 화랑유원지를 공원 건립 장소로 결정하고 2019년 1월 24일 윤화섭 안산시장 화랑유원지에 ‘4·16생명안전공원’ 건립계획을 밝혔다. 2019년 10월 2일, 정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의결을 통해 국가 재정 지원 대상 재단으로 ‘재단법인 4·16재단’을 선정하고, 「안산시 추모시설(가칭, 4·16생명안전공원) 건립 기본방향」을 확정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겪으며 탄생한 4·16생명안전공원은 지금도 이어지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의미, 그리고 치유 방안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모델이 될 수 있다.

## 6. 다크 투어리즘 장소로의 생명안전공원의 의미

역사적으로 비극적이거나, 슬픈 사건이 일어났던 곳을 방문하는 다크 투어리즘은 도시 재생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sup>38)</sup> 4·16 생명안전공원도 재난극복 의미를 담은 기억 여행의 새로운 유형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세월호 팽목항을 ‘다크 투어리즘’ 장소로 삼아 4·16공원을 만들자<sup>39)</sup>는 논의도 있었다. 홀로코스트 박물관이나 뉴욕 9·11 기념공원<sup>40)</sup>

---

추모공원 후보 주변지역 주민 대상 4·16생명안전공원 조성을 위한 2차 주민 경청회, 2월 25일 4·16생명안전공원 조성을 위한 2차 시민토론회 실시, 6월 시민 토론회가 파행적으로 무산되어 부지선정은 실패하고 추모사업협의회가 해산됨. 2018년 2월 20일 제종길 시장이 화랑유원지를 생명안전공원부지로 선정하여 발표함.

38) 오명선·강형철,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 활성화 연구,” 『브랜디자인학연구』 17(2019), 175-184.

39) ‘세월호 팽목항을 ‘다크 투어리즘’ 장소로...4.16공원 만들자’, 『매일경제』2019년 3월 9일.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3/142453/> (2021년 6월 5일 접속)

40) 9·11테러가 발생한 뉴욕 세계무역센터 부지는 당시의 테러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 사건을 기억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메모리얼 공간으로 조성되어 하루 평균 4천 명의 추모객이 방문하는 다크 투어리즘 명소가 되었다.

등과 같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죽음이나 재난과 관련된 장소를 관광지화하는 다크 투어리즘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다양한 역사적 비극의 현장을 다크 투어리즘으로 변모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국내의 다크 투어리즘에 대한 관심은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둔 테마파크로 개발하는 것이며, 둘째는 어두운 역사적 장소를 보존하거나 정비하여 교훈의 대상으로 삼자는 것이다.<sup>41)</sup> 다크 투어리즘이 이뤄지는 장소는 방문객의 정서적 경험과 그로 인한 만남을 구성하는 맥락과 한계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죽음과 재난을 상징하는 장소에서 방문자의 경험에 스며드는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이해하는 더 깊은 층을 제공한다.<sup>42)</sup> 또한 관광을 통해서 재난에 대한 기억이 파괴와 상실의 서사에서 어떻게 재생과 희망의 서사로 전환될 수 있는지 방법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다.<sup>43)</sup>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4·16 생명안전공원은 다크 투어리즘의 현장으로 손색이 없다. 기억공간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외부인들의 다크 투어리즘은 기억의 영토화를 공고히 하고 나아가 영토를 확장하게 한다. 다크 투어리즘은 외부인에게 심리적 위안과 화해라는 사회적 혜택을 주면서 기억의 영토화가 대결과 긴장으로부터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기능이 있다.<sup>44)</sup>

이외에도 다크 투어리즘을 재난을 겪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갈등을 줄이는 도시 재생의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세월호 사고 이후 주민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41) 장성곤·강동진. “지속가능한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의 개념 정의와 전개과정 분석,” 『한국도시계획학회지 도시설계』 18(2017), 63-80.

42) Martini, A. & Buda, D. M., “Dark tourism and affect: framing places of death and disaster,” *Current Issues in Tourism*, 23(2020), 679-692.

43) Tucker, H., Shelton, E. J., & Bae, H. Post-disaster tourism: Towards a tourism of transition. *Tourist Studies*. 17(2017), 306-327.

44) 신혜란, “기억의 영토화 세월호 기억공간 형성과정을 사례로,” 115-154.

주민들 사이에 의견 차이와 갈등이 발생했다고 대답한 주민 중 상당수가 그 원인으로 사고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를 들었다. 지역주민들이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지역에서 가장 먼저 했으면 하는 일은 주민참여 소통 프로그램이지만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을 언급한 경우도 압도적으로 높았다. 공원 내 낚골당이 들어오면 혐오시설로 인해 공원 인근의 집값이 떨어진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지며 오히려 안산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고 ‘생명안전 도시’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와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sup>45)</sup> 그러나 다크 투어리즘의 장소로서 생명안전 공원용 단순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이 아니라 비극적 사건에 대한 역사적 교훈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 III. 나가는 말: 추모와 애도를 넘어서 안전과 생명으로

세월호 참사는 한국사회의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4·16 생명안전공원은 그 문제들의 근본을 전환하는 출발점이 된다. 세월호 사건에서 나타난 우리 사회의 자화상은 4·16생명안전공원 조성과정에서도 새롭게 나타나야 한다. 생명안전공원이 사회적 참사로 인한 아픔과 슬픔에 대한 애도와 추모를 넘어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로 나아가고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45) 안산시 중심에 있는 화랑유원지 일대는 교통·주거·문화·예술·체육과 관련한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인데 최근에는 인근 지역이 KTX 정차역이 되고 재개발로 초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안산시는 2022년까지 2,000여억 원을 들여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복합문화시설로서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화랑유원지에만 국립도서관(700억 원), 육아종합지원센터(88억 원), 4·16 생명안전공원(470억 원), 다목적체육관 및 테니스장(84억 원, 청소년수련관(144억 원), 안산(산업)역사박물관(250억 원) 등이 신규 건립 중이거나 추진될 예정이다. ‘화랑유원지, 명품 메모리얼 파크로 거듭난다’, 『환경과 조경』2019년 1월 24일. [https://www.lak.co.kr/news/boardview.php?id=5951&ca\\_id=102010](https://www.lak.co.kr/news/boardview.php?id=5951&ca_id=102010) (2021년 6월 5일 접속)

첫째, ‘추모’에서 ‘생명안전’으로의 명칭변화는 질적 도약을 의미한다. 4·16 생명안전공원은 그간 세월호 참사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고 세월호 참사를 한국사회의 여러 재난 안전 사고와 비교해 공통된 함의와 개선 방안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전개된 바 있다. 이는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보편적인 시대적 과제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sup>46)</sup> 이 안전이란 자본이 안전한 혹은 자본과 결합한 권력이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 생명이 안전한 나라, 자본과 권력이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나라이다.<sup>47)</sup> 이윤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은 시대의 요청인 것이다. 안전은 어휘적 의미에서의 단순한 사고의 반대개념이 아니다. 단순한 교통사고, 화재, 재난에 대한 안전의 수준을 넘어서 생활양식과 사회시스템 제도 안에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치유와 화해를 넘어 평화와 공존으로 가야 한다.

둘째, 치유와 화해는 진상 규명을 전제로 하며,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참사의 아픔은 여전히 온 국민의 가슴에 뚜렷이 새겨져 있으며, 그날의 진실은 아직도 어둠 속에 감춰져 있다. 4·16 생명안전공원은 기억의 주체와 공간을 되찾기 위한 투쟁의 장소이기도 하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은 고통과 기억공유를 통하여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그들의 고난과 죽음이 망각되지 않도록 연민의 한계와 공감의 무력감을 넘어서는 ‘기억의 윤리’를 통해서 보존되고 재현되어야 한다.<sup>48)</sup>

셋째, 4·16 생명안전공원은 단원고 이외의 희생자에 대한 기억과 유

46) 김명희, “재난의 감정정치와 추모의 사회학 : 감정의 의료화를 넘어 사회적 치유로,” 145-178.

47) 권창규, “어떤 죽음을, 어떻게 슬퍼할 것인가,” 「진보평론」61(2014), 22-36.

48) 김은혜, “기억의 윤리와 기독교 생명가치,” 「장신논단」47(2015), 153-175.

가족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국의 자발적 추모공간으로 확대되고 연결되어야 한다. 전 국민이 4·16 참사를 기억하고 더 나아가 생명과 안전에 관한 소비자(consumer)이자 생산자(producer)인 프로슈머(prosumer)로 참여하여 뉴 미디어(new media)와 IT를 활용한 기억의 보존과 전파가 이루어지는 장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장은 인간의 안전과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과 환경을 포함해야 한다.

넷째, 집단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이 같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노력은 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그 실효성을 더할 수 있다. 지역의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주도의 사업으로 진행됨이 바람직하지만, 공동체 회복에 필요한 복합시설 등을 설치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지방자치단체 혹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4·16생명안전공원은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롬12:15)”는 성경말씀처럼, 공감을 통한 치유와 회복<sup>49)</sup>이 이뤄지는 곳인 동시에 부활 신앙이 생명이 되는 곳이어야 한다. 부활신앙이란 십자가 사건의 암묵기억을 공동체적으로 회복하는 일이며, 신학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흩어진 이들을 다시금 안전하게 연결하고 십자가의 품 안으로 품어내는 것을 의미한다.<sup>50)</sup> 4·16생명안전공원은 세월호의 죽임과 죽음의 문화를 넘어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가치를 회복하고 생명의 길을 배우고 찾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49) 이종원, “세월호 참사와 공감의 윤리,” 『기독교사회윤리』46(2020), 45-75.

50) 권수영, “트라우마와 기억의 재구성,” 『신학논단』79(2015), 11-41.

## 참고문헌

- Edward C., *Remembering: A Phenomenological Stud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7.
- Franck K.A. & Paxson, L., "Transforming public space into sites of mourning and free expression." In Franck K. A. & Stevens. Q., (Eds) *Loose Space: Possibility and Diversity in Public Life*. (London: Routledge, 2007).
- Gesler, W. M., "Therapeutic landscapes: Medical issues in light of the new cultural geography," *Social Science & Medicine*, 34(1992), 735-746.
- Herman, Judith. 최현정 역, 『트라우마-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파주: 얼린책들, 2012.
- Lefebvre, Henri. 양영란 역, 『공간의 생산』 서울: 에코리브르, 2011.
- Martini, A. & Buda, D. M., "Dark tourism and affect: framing places of death and disaster," *Current Issues in Tourism*, 23(2020), 679-692.
- Tucker, H., Shelton, E. J., & Bae, H. Post-disaster tourism: Towards a tourism of transition. *Tourist Studies*. 17(2017), 306-327.
- 강동연 외 3인, "추모공간의 시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9(2019), 677-685.
- 권수영, "트라우마와 기억의 재구성," 「신학논단」79(2015), 11-41.
- 권창규, "어떤 죽음을, 어떻게 슬퍼할 것인가," 「진보평론」61(2014), 22-36.
- 김도훈, "도심형 메모리얼파크의 사회적 담론 및 인식분석을 통한 4·16 세월호 참사 추모공원 방향성 제안 연구," 「한국조경학회지」48(2020), 25-38.
- 김명희, "재난의 감정정치와 추모의 사회학: 감정의 의료화를 넘어 사회적 치유로," 「감성연구」19(2019), 145-178.
- 김명희, "세월호 이후의 치유," 「문화와 사회」19(2015), 11-53.
- 김왕배, "트라우마의 치유과정에 대한 사회학적 탐색과 전망," 「보건과 사회과학」37(2014), 5-24
- 김은혜, "기억의 윤리와 기독교 생명가치," 「장신논단」47(2015), 153-175.
- 박수경, "일상적 삶에서의 치유의 공간에 관한 지리학적 고찰," 「대한지리학회지」

49(2014), 546-562.

박수경, “세월호 참사 이후 지역 커뮤니티에 형성된 치유의 공간에 대한 지리적 고찰,” 『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대회발표집』(2017), 3-8.

서지석·고진호, “추모공간 환경설계와 죽음 교육프로젝트 실행 탐색,” 『종교교육학연구』 63(2020), 1-18.

송현동, “한국 사회의 죽음에 대한 태도,” 『비교문화연구』 11(2005), 207-243.

신혜란, “기억의 영토화 세월호 기억공간 형성과정을 사례로,” 『공간과 사회』 57(2016), 115-154.

심영섭, “집단적 기억과 기억 공간: 에쉴레와 엔쉴레 그리고 세월호,”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6(2018), 177-199.

오명선·강형철,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 활성화 연구,” 『브랜드디자인학 연구』 17(2019), 175-184.

오혜영, “재난에서의 집단 트라우마와 지역공동체 탄력성,” 『한국심리학회지』 28(2016), 943-969.

윤지관, “추모, 기억, 그리고 역사 — 추모공간으로서의 강북.” 『인문과학연구』 18(2013): 69-82.

이승엽·변나향, “시민 자발적 추모공간의 형성과 공간적 특징 - 강남역 10번 출구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21(2019), 71-78.

이종원, “세월호 참사와 공감의 윤리,” 『기독교사회윤리』 46(2020), 45-75

장성곤·강동진, “지속가능한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의 개념 정의와 전개과정 분석,”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18(2017), 63-80.

전성원, “애도의 정치학 혹은 정치의 부재에 대하여,” 『플랫폼』 48(2014), 8-14.

MBC 뉴스, “어렸을 때 뛰놀았던 유원지…이젠 거기서 영원히.”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251886\\_28802.html](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251886_28802.html)  
(2021년 6월 5일 접속)

YTN,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부지 찬반 논란.” [https://www.ytn.co.kr/\\_ln/0115\\_201904150410359879](https://www.ytn.co.kr/_ln/0115_201904150410359879) (2021년 6월 5일 접속)

가톨릭뉴스, “세월호, 트라우마는 극복되지 않는다.”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01> (2021년 6월 5일 접속)

가톨릭뉴스, “416 재단은 나와 우리의 재단.” <http://www.catholicnews.co.kr/>

news/articleView.html?idxno=19872 (2021년 6월 5일 접속)

경향신문. “세월호 참사 치유 사회적 책임 담아…안산 시민들이 안전도시 조레안 발의.”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1704132341015&nlv=c2b](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1704132341015&nlv=c2b) (2021년 6월 5일 접속)

매일경제. “세월호 팽목항을 ‘다크 투어리즘’ 장소로…4.16공원 만들자.”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3/142453/> (2021년 6월 5일 접속)

미디어오늘. “세월호 유가족은 ‘세금도둑’ 가짜뉴스를 어떻게 이겨냈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828> (2021년 6월 5일 접속)

이데일리. “세월호 유족 희생학생 품고 안전사회로 가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41446629014808&mediaCodeNo=257> (2021년 6월 5일 접속)

중앙일보. “안산시의회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 가결.” <https://news.joins.com/article/22215210> (2021년 6월 5일 접속)

참여와 혁신. “세월호 참사의 기억과 기억의 영토화.”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72> (2021년 6월 5일 접속)

투데이신문. “기억과 망각 사이에 놓인 세월호…4·16생명안전공원 부지 놓고 찬반 갈등.”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657> (2021년 6월 5일 접속)

환경과 조경. “4.16생명안전공원 국제설계공모전 스타트.” <https://www.lak.co.kr/news/boardview.php?id=10630> (2021년 6월 5일 접속)

환경과 조경. “화랑유원지, 명품 메모리얼 파크로 거듭난다.” [https://www.lak.co.kr/news/boardview.php?id=5951&ca\\_id=102010](https://www.lak.co.kr/news/boardview.php?id=5951&ca_id=102010) (2021년 6월 5일 접속)

논문투고일: 2021년 6월 30일

심사개시일: 2021년 7월 15일

게재확정일: 2021년 8월 19일

---

• 국 문 초 록 •

---

본 연구는 세월호를 어떻게 기억하고 상처를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 4·16 생명안전공원이 갖는 공간적 의미를 통해 탐색해보고자 한다. 우선 생명안전공원의 조성을 위한 과정을 살펴본 뒤, 공간으로서 생명안전공원이 갖는 의미를 살펴 보았다. 첫째, 기억공간으로서의 생명안전공원은 희생자 가족에게 애도와 추모의 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사회적 참사에 대한 애도와 추모의 공간이기도 하다. 둘째, 추모와 애도의 공간, 치유와 화해의 공간, 기억의 영토화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또한, 갈등과 합의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 가는 공간이며 도심의 공원에 위치하여 도시 재생을 비롯한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곳이기도 하다. 끝으로 4·16 생명안전공원이 사회적 참사로 인한 아픔과 슬픔에 대한 애도와 추모를 넘어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로 가는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공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했다.

**주제어:** 세월호 참사, 4·16 생명안전공원, 공간의 의미, 기억의 영토화, 치유의 경관

---